

구라보 - 내년 봄 · 여름철 용 편성포로

면의 다채로운 표정 만들어내

구라보는 “드라이(dry)한 면”, “가쁜한 면”, “남은 듯한 면”과 같이 표정이 각기 다른 면편성포를 내년(2003년) 봄 · 여름철 상품용으로 생산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. 또한 “비타민(vitamin)고착”, “마이너스 · 이온(minus ion)발생”, “광촉매(光觸媒)” 등과 같이 소매업계에서 인기가 있는 가공기술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선보이고 있다.

구라보는 손으로 뽑은 실처럼 굵기가 고르지 않은 면사 “웨이비 · 매직(wavy magic)”, 실의 속이 비어 있는 “중공면사(spin · air)”나 잔털이 적은 특수 방적사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섞어 짠 “젯 · 스타(jet star)”와 같은 여러 종류의 실이나 편성물을 개발해 놓고 있다. 이들이 갖고 있는 감촉(感觸)이나 표정(表情)을 조합하여, 9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니트업계나 어패럴 전문가에게 소개함으로써 면의 다양한 매력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.

가공제품으로는 비타민류를 직경이 0.1미크론(micron : 1미터의 100만분의 1)에서 10여 미크론의 교갑(膠匣)인 마이크로 · 캡슐(micro-capsule)에 담아서 편성지에 수지로 고착시킨 “Hi · C · S”를 새로 발표하였다. 이외에도 “마이너스 · 이온”을 만들어 내는 “오람”이나 광촉매형 이산화티탄을 이용하여 항균성이나 소취성 등의 기능이 있는 “선 · 터치(sun-touch)” 등 각종 가공제품도 소개하고 있다.